



Web Contents



2024년 05월 10일 16시 59분

목포시, 목포대 의과대학유치 SNS 릴레이 캠페인 나서

2024.04.25 조희수 102 담당부서 큰목포기획단



-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적극 호소

목포시가 전남 서부권의 34년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이번 챌린지는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개인 SNS에 참여 이유 및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첫 주자로 나선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시민의 34년 숙원! 의대는 국립목포대로!'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동참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많은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목포시는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역 거점대학인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34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며, "공공의료는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및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문치복 목포시의회 의장과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의대유치팀장 오영중 270-3777, 주무관 박보현 270-3780)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1.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대 의과대학유치 SNS릴레이 첫주자 나서.jpg (18 hit/782.6 KB)

미리보기

MokPo - Si
Web Contents

